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추향秋享, 제사祭祀에 대한 소고小考



권오신
칼럼니스트, 윤곡서원위원장

지난해 12월 3일 안동시 북후면 잣밭길 산록, 성역화된 좌윤공파(佐尹公派) 묘원에서 파조부군(派祖府君)을 비롯한 11세 은정광록대부(銀青光祿大夫) 추밀공(樞密公), 12세 정랑공(正郎公), 13세 문과공(文科公), 14세 영가군(永嘉君), 15세 송록대부(崇祿大夫) 고려 문하시중공(高麗門下侍中公), 16세, 대광보국송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좌의정(左議政) 문정공(文靖公) 추향 봉행 때 미국 생활이 익숙했던 어느 후손이 제주(祭酒) 의식에 대한 감탄사다.

첫 잔을 올리던 초헌관(初獻官, 權五教)이 집사가 채워준 술잔을 받아서는 세 번을 나누어 땅에 붓고 원래 자리(祭酒于地)에 놓은 다음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조상에게 올리는 술 한잔도 자연, 신(神)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시는 한국의 제례(祭禮) 문화를 미국인들이 알았다면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스터)의 열풍을 조월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미주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케데헌은 한국의 문화를 스토리로 깔고 제작됐다. 미국 구글의 인기 검색 순위 2위에 올랐을 만큼 케데헌은 미주 전역을 휩쓸었고 새해 들어서도 그 인기는 여전하다.

훈기(飮記)를 읽는 집사도, 제단(祭壇) 주위에서 술잔을 나르고 향을 사르는 헌관(獻官)이나 참제원들이 훈(飮)에 맞추어 50분간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은 한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 제례(祭禮) 문화다.

한국의 제례 문화는 동서양을 통해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숭모(崇慕) 정신이 가득 들어있다. 고려(高麗) 조선(朝鮮)을 지나면서도 그 전통이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보완됐다.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뿌리 깊게 심어진 제례문화는 세상에 등장시킨 그 근본과 출발을 기억하고 자신의 세계(世系)를 잇는 정신이 깃들었다. 세계(世系)나 문종 가족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천 년을 이어졌다.

조선(朝鮮)의 사대봉사(四代奉祀)로 인해 가계를 어렵게 한 사례도 더러 있지만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사대봉사(四代奉祀)의 의미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제조 때 편찬, 성종대에 완성된 조선 최고 법전)에 정리돼 있다. 6품 이상은 증조부(曾祖父)까지 3대 봉사, 7품 이하는 조부모(祖父母)까지 지내는 2대 봉사, 평민은 부모만 제사 지내도록 기록됐다. 봉사 대수를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정해 제사가 많을수록 신분이 높았다.

지금의 제례형식은 주자가례(朱子家禮) 도입 이후부터다. 이 시기부터 벼슬이 없는 평민도 사대봉사(四代奉祀)의 시원(始元)이 됐다. 중국 평민들은 지금도 당대만 지낸다.

족보(族譜)에 기록된 가선대부(嘉善大夫) 통정대부(通政大夫) 통훈대부(通訓大夫) 당상관(堂上官) 벼슬 고지 등 조상의 사회적 위치와도 연결, 제사의 품격이 달라졌다. 조선(朝鮮)의 공직자는 아버지 제삿날은 공무를 보지 않고 노는 날이 됐다. 조선(朝鮮)은 관리들에게 식가(式暇, 관원에게 주는 휴가)라는 제도를 두고 조상과 형제자매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었다.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일기에도 기록됐다.

당시는 종부(宗婦)는 물론 규방 살림을 책임진 부인(婦人)들이 제사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지 못하면 살림을 잘 못하는 여자로 금방 소문이 나고 수치로 여겼다. 자신의 생일(生日)보다 제삿날을 더 챙기고 제관들을 넉넉하게 먹일 생각으로 살림살이가 요동쳤다. 그래서 제사 순서에 종손(宗孫) 또는 주손(胄孫)이 첫 잔을 올리고 두 번째 잔은 그집 종부(宗婦) 또는 만며느리가 올 리도록 배려됐다.

이덕무의 “사소절” 한 문장을 빌리면 “넉넉히 먹일 생각이 앞서 빚을 얻기까지 한다”고 적었다. 제사로 인한 잡음으로는 제사의 방법과 형식이란 것이 모두가 사람이 정한 것이지 무슨 절대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닐터.

성리학(性理學)에 근본을 맞추는 유교식 제사 의식, 예기(禮記)엔 “어떤 제사든지 자주 지내지 말아야 하며 자주 반복되면 공경심이 없어진다. 제사를 너무 오랫동안 지내지 않으면 조상을 잊어버리기 쉽다.”고 지적했다.

제사는 장남이 지내야 한다는 원칙은 고려(高麗)엔 없었다. 지금은 낯설지만 외손(外孫) 봉사가 올하는 누님덕에서 지낸다는 기록이 흔한 것을 보면 꼭 장남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없다. 사대봉사(四代奉祀) 전후부터 일반적인 관행은 시대상에 맞도록 딸아들 구분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지냈던 고려(高麗) 제도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는 말라는 中庸)이 좋다. 서원(書院)이나 종중 제향(祭享)에 참석해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향례(享禮)를 이끌어 가는 사례를 종종 본다는 말이 화자 된다. 예가 지나침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말일 것 같다.

지난해 추석은 연휴가 지나치게 길었다. 차례(茶禮)보다 휴가에 더 빠져드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쉽게 본다. 새해에도 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는 최저닷새간이니 공항은 해외에서 설을 맞이하려는 국민들로 지난해 추석처럼 북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휴가에 빠져들면서도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 대해서 늘 자유스럽지 못하다. 마음속엔 여전히 조상에 대한 숭모(崇慕) 위선(爲先) 정신이 가슴 깊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사(祭祀)는 죽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실어 나르는 매체다. 제사는 왜 지내는가. 율곡 이이(李珣, 1537~1584)가 지은 만사(輓詞) “큰 형을 위한 제문”에서 답을 찾았다. “잔을 올려 작별을 고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헤어지는 듯합니다.”

딸 아들 구별 없이, 음식상도 간결하게, 기일(忌日) 역시 자녀들의 일정에 맞게 조정하는 쪽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2025년 능곡회 송년의 밤 행사 성대하게 개최

안동권씨능곡회(陵谷會: 회장 권기섭)가 주최하는 “2025년 능곡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2일 저녁 6시 30분 안동시예술의 전당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토마토뷔페’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우성 상임부회장이 내빈을 소개하였는데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역대 능곡회 회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부부,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이며 능곡회원 및 부인회원, 능우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동관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1부 행사는 권광택 능곡회 직전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묘소 망배, 상음례, 감사장 및 우수회원증 전달, 회장 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능곡회 권기섭 회장은 능곡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창립 39주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능우회에 감사장을, 또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능곡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권계돈(부정공파), 권순익(북야공파) 두 회원에게 우수회원증과 꽃다발 그리고 부상을 각각 수여했다.

권기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녀너름에는 복회를 비롯하여 시조 묘소 추향제를 봉행하는 등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지나갔다”고 말하고 “되돌아보면 잘못된 일도 많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활력이 넘치는 능곡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권광택 직전회장은 격려사에서 “올을 사년에는 각종 재난과 장마도 많았으며 요즘 들어선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모임이 많고 최근 능곡회가 활성화 되어가는 모습에 감사하며 내년에는 더 큰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권오의 대종회 사무국장은 격려사에서 “능곡회는 권문의 후손들이고 능곡회원을 보면 힘이 저절로 난다”며 “올 한해도 힘을 모아 마무리를 잘하자”고 격려했다. 다른 행사로 좀 늦게 도착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안동역사를 만든 주인공이 안동권문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안동발전에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한다.



본 행사에 앞서 권기춘 회장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수많은 독립유공자 가운데 석주 이상룡, 일송 김동삼, 육사 이원록 등 전국의 20명이 서훈(敍勳)을 온전히 바로 잡지 못한 채 남아있어서 서훈 재평가를 요청하기 위해 만인서명의 취지문을 알리고 회원들한테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이 인사차 많이 찾아왔다.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권백신(전 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이사), 김의승(전 서울시행정부시장)과 안동시의원 출마예정자인 권기윤, 권영백, 권기원, 권용덕, 여주회가 찾아와 인사를 한 후 돌아갔다.

오늘 행사에 권영창 대종회 회장과 권영상 북야공파종회 회장이 대령 화환을 보내와 송년의 밤을 축하하기도 했다.

2부 행사는 뷔페식 저녁 식사와 여흥시간을 가졌다. 안동MBC에 근무하고 있는 강경왕씨가 사회를 보고 윤혜리 초청가수가 자신의 애창곡 ‘스마일어게인’을 노래하는 등 회원들과 함께 푸짐한 상품을 전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권기섭 회장이 제공한 타월 1장씩과 안동 간고등어 한 손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시민과 함께 만들어지는 열린안동포럼 창립총회 개최

열린안동포럼(공동대표 이학승)이 주최하는 “열린안동포럼 창립총회 및 주제발표회”가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 안동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노혜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식전행사로 테너 채윤호, 소프라노 박진숙 등 두 성악가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사회자는 개회 및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을 소개하였다.

내빈은 권광택 열린안동포럼 고문(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이학승 공동대표, 정동호 전 안동시장, 이희재 전 국립안동대 총장, 김경도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 전 안동시의회의장, 김형동 국회의원 부인, 김명호 전 경북도의회 의원, 안동시의회의 의원들, 각 문종 대표 및 유림 대표 등이다.

이학승 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김경도 안동시의회의장, 정동호 전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부인, 권광택 고문이 차례로 축사를 하였다. 이어 김봉현 포럼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를 하였다.

전문가 김현기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안동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에서 열린안동포럼 목적은 지역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이다. 안동의 당면 과제는 일자리 창출, 산업의 노후화, 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상급병원 유치, 안동문화관광단지 및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활용화, 구 안동역사 부지 활용, 육군 제50사단 군부대 활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골든타임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인구감소를 막고 문화관광과 바이오, 백신, 대마 등 안동이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 북부 의료취약 지역에 경북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안동의 변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에서 한국은 저출산 시대에서 초 저출산, 초 저출생 시대로 돌입했다. 청년은 지속적으로 지역을 빠져 나가고 있지만 비 청년 인구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양상이다. 2015년 이후 청년인구(19~39세) 유출 양상은 더 빨라지고 있는 반면 비 청년인구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인구감소위기의 흐름에서도 경북의 대다수 시군에서는 중장년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에서는 저출산, 저출생, 청년인구와 중장년인구의 동시 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 울음 소리가 커지는 변화를 보려면 삶의 질 영역에서 물질적 생활조건의 개선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발표자들이 단상위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한 후 폐회하였다.

권영건 보도부장

謹 賀 新 年

존경하옵는 안동권씨 100만 족친 여러분!

파종회장협의회 회장단 회장님, 전국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단 회장님,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장협의회 회장단 회장님,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족친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회장 권태형
사무국장 권우경

지 역	회 장	사 무 국 장	지 역	회 장	사 무 국 장	지 역	회 장	사 무 국 장	지 역	회 장	사 무 국 장
강릉	권혁일	권영근	봉화	권영만	권오서	예천	권오완	권의영	청주	권영식	권혁만
경산	권경수	권영승	부산	권부현	권덕림	울산	권명달	권응목	태안	권용구	권수웅
경주	권동환	권진모	산청	권병국	권희성	원주	권순구	권용덕	합천	권유상	권영식
광주	권찬익	권혁환	서울	권정호	권영일	의성	권인섭	권미란			
구미	권영삼	권용범	안동능곡	권광택	권동관	음성	권병택	권오문			
담양	권공식	권창만	안양	권혁태	권동준	제천	공 석	권영인			
대구	권오훈	권준현	영덕	권신기	권영태	진천	권정욱	권순성			
대전	권지원	권선교	영주	권오현	권용일	창원	권영민	권중수			
문경	권상인	권우덕	영천	권혁진	권영운	청송	권오경	권영호			

安東權氏 全國靑壯年會長協議會 會長 권태형